

## 특집 4

### 전쟁과 툴리피(TULIP): 도르트 신조의 인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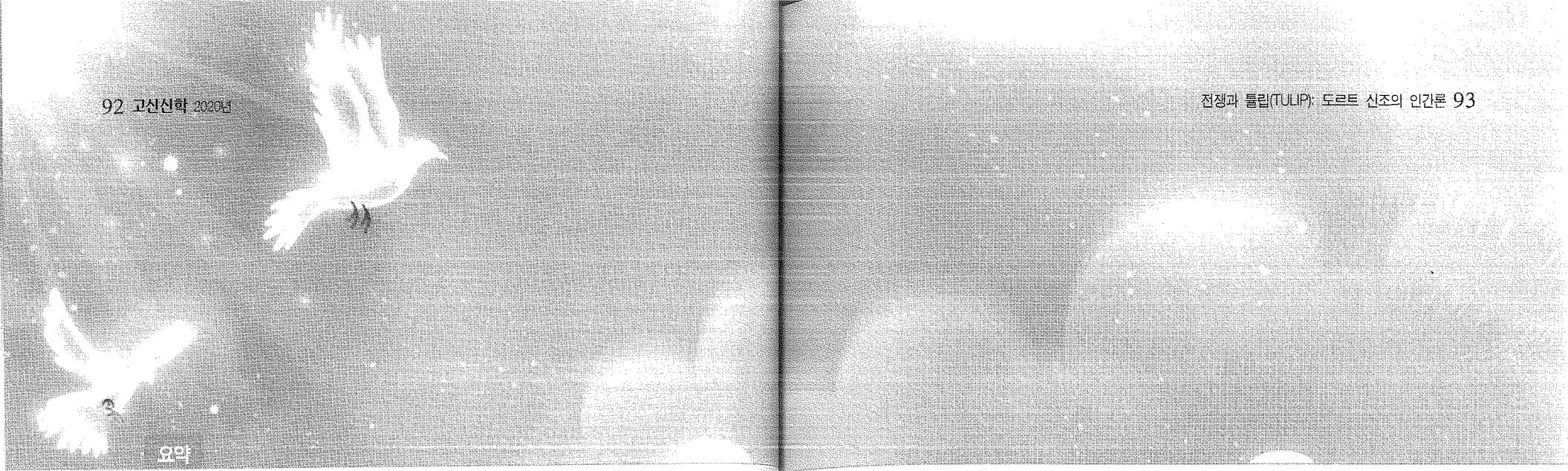
War and TULIP: The Anthropology of the  
Canons of Dort

우병훈

고신대 (신학과 교수)

#### 목차

- I. 도르트 회의의 의의와 인간론 | 97
- II. 도르트 신조와 인간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가  
가르친 인간론의 기본적 성격 | 102
- III.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인간론 | 109
  1.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 109
  2.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 113
  3. 도르트 신조 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회심 후의 태도 | 115
  4. 도르트 신조 다섯째 교리: 성도의 견인 | 125
- IV. 결론 및 적용 | 127



## 전쟁과 툴립(TULIP): 도르트 신조의 인간론

도르트 신조는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따른 항론파의 주장을 반대하고 개혁파의 주요 교리들을 천명했다. 그 교리들은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교리들은 모두 인간론에 대한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준다. 첫째, 인간의 죄성을 기억해야 한다. 도르트 신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친다. 죄론이 바르게 정립될 때 선택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등 중요한 교리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둘째, 구원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신자는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호흡한다. 그렇기에 신자는 낙망하지도 교민하지도, 타자에게 위선적이지도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는다. 셋째, 신자는 자기 자신 안에서는 겸손하고,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는 관용하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성도의

삶에 대한 대강령과 같다. 넷째, 신자는 변화된 본성을 가졌기에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성령에 대한 강조 때문에 도르트 신조는 개혁파 신자가 아르미니우스파나 로마 가톨릭보다 더욱 선행을 열심히 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섯째, 신자는 영적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도르트 신조가 매번 끝 항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담긴 찬양을 표현한 것이다.

*War and TULIP:  
The Anthropology of the  
Canons of Dort*

주요어

도르트 신조, 인간론, 구원, 아르미니우스, 항론파

**Abstract**

**War and TULIP: The Anthropology of the Canons of Dort**

Prof. Dr. Byung-hoon Woo

The Canons of Dort opposed the arguments of the Remonstrants, who followed Arminius' theology and declared the major Reformed doctrines. The doctrines are about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total depravity, irresistible grace, and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All of these five points give essential teachings about anthropology as follows: First, we must remember human sinfulness. The Canons of Dort teach that God is glorified when I confess that I am a sinner. When the doctrine of sin is properly established, important doctrines such as the doctrine of election, soteriology, Christology, and Pneumatology can be properly established. Second, salvation is thoroughly based on the grace of the Triune God. Christians live, act, and breathe wholly within the fence of the Triune God. Thus, believers are not only discouraged and proud of themselves but also are not hypocritical and critical of others. Third, believers should pray with humility, be tolerant of fellow believers, and show compassion for unbelievers. This is a great charter for the saints, which the Canons of Dort teach. Fourth, since believers have a changed nature they must actively

obey the Holy Spirit. Based on the emphasis on the Holy Spirit, the Canons of Dort emphasize that Reformed believers can do more good works than Arminians or Roman Catholics. Fifth and finally, believers should begin their Christian life again, remembering the grace and help of God, even if they fall spiritually. At the end of each article, the Canons of Dort underscore the doctrine of “Glory to God only” to express the praise of hope for God who saves human beings.

**Keywords** | Canons of Dort, Anthropology, Salvation, Arminius, Remonstrants

## I. 도르트 회의의 의의와 인간론

네덜란드는 스페인(합스부르크 에스파냐)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1568년부터 1648년 사이에 전쟁을 치렀는데, 이를 “네덜란드 독립 전쟁(Dutch War of Independence)” 혹은 “80년 전쟁(Eighty Years' War)”이라고 한다. 그 사이에 1609년부터 1621년에 “12년의 휴전협정(Twelve Years' Truce)”이 맺어진다.<sup>1)</sup> 휴전 기간 중에 네덜란드에서는 아르미니우스파와 고마루스파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를 다루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도르트 회의(Synod of Dordt)였다. 이 회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주장했던 “항론파(Remonstrants)”가 제기했던 5가지 요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1618년에 네덜란드의 도르트레흐트(Dordrecht)에서 개최되었다. “항론파”라는 이름은 1610년 7월에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된 문서(Remonstrance)에서 유래한다. 그 문서에 대해서 “반항론파(Contra-Remonstrants)”는 1611년 3월에 그들 자신의 문서(Contra-Remonstrance)를 제출하였다.<sup>2)</sup> 항론파와 반항론

- 1) Jonathan Israel,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라. 특히, 제9장과 제20장을 보라.
- 2) Eric Platt, *Britain and the Bestandtwisten: The Causes, Course and Consequences of British Involvement in the Dutch Religious and Political Disputes of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13n1. 도르트 회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하라. Herman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XV-XXXII; 김요섭, “공동의 신앙고백 위에서의 교회의 일치: 도르트 회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한국장로교신학회』11 (2014): 136-63; 우병훈, “도르트 회의와 아우구스티누스: 파레우스의 ‘조사’와 영국 특사들의 ‘의견서’를 중심으로,”『한국개혁신학』59 (2018): 133-74. 셀더하위스의 글이 실린 책은 도르트 회의 문서들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하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책이며, 도르트 회의를 연구할 때에 꼭 필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이하에서 이 시리즈는

파의 토론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어졌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르트 회의가 열린 것이다.<sup>3)</sup> 헤르만 셀더하위스는 도르트 회의를 “최초의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한 국제적 개혁파 총회”로 표현한다.<sup>4)</sup> 참석한 신학자들 중에 다수가 반항론파로 구성되었던 도르트 회의는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180회의 모임을 가졌다.<sup>5)</sup> 항론파 대표 13명은 1618년 12월 6일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회의 진행 방식을 계속 거부하였고 무엇보다 회의의 정통성 자체를 거부하자 1619년 1월 14일에 쫓겨나고 말았다.<sup>6)</sup> 그 날, 회의의 의장이었던 요한네스 보거만(Johannes Bogerman)은 격한 감정이 실린 연설을 한 후에 “당신들은 해산되었으니, 나가시오(Dimittimini, exite).”라고 말하면서 항론파를 쫓아내었다. 항론파가 퇴장 당한 후에 도르트 회의는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계속 토론하였고,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였다. 외국 특사들이 돌아간 이후에는 네덜란드 교회의 문제들

ADSNd로 약칭함). 이 책에 실린 글들 가운데 도르트 회의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논문들은 아래와 같다. Herman J.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XV-XXXII; Christian Moser, “Scope of Edition and Editorial Guidelines,” XXXIII-XXXVIII; Donald Sinnema, “Introduction to the Acta Authentica, Acta Contracta and Printed Acta,” XXXIX-LII; Johanna Roelevink, “Introduction to the Acts and the Instructions of the Delegates of the States General,” LIII-LXII; Fred van Lieburg, “The Participants at the Synod of Dordt,” LXIII-CVII; Donald Sinnema and Janika Bischof eds., “Acta Authentica,” 3-187; Donald Sinnema ed., “Acta Synodi Nationalis: First Printed Edition,” 189-336; Janika Bischof and Donald Sinnema eds., “Acta Contracta,” 337-466.

3) 도르트 총회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박성환, “도르트 신조에 관한 설교학적 이해,” 「한국개혁신학」 59 (2018): 56-61; 김요섭,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적 교회론 연구,” 「개혁논총」 30 (2014): 365-78을 보라.

4)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XV에 나오는 헤르만 셀더하위스의 표현이다(“the first and, to the present, only international Reformed synod”).

5) Aza Goudriaan and Fred van Lieburg, “Introduction,” in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ed. Aza Goudriaan and Fred van Lieburg (Leiden: Brill, 2011), XI.

6)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XXVIII.

을 처리했는데, 주로 교회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것은 도르트 회의가 가진 목회적 측면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sup>7)</sup>

도르트 회의의 신학적 토론 결과를 담은 도르트 신조(Canons of Dordt)는 1619년 5월 6일에 “흐로띠 케르크(Grote Kerk)”에서 낭독되었다. 도르트 회의는 항론파 문제를 다루는 일 외에도 많은 신학적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개혁교회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가 크다. 가령 도르트 회의의 결과로, 도르트 신조와 벤저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해 개혁파 직분자들(목사, 교수, 장로, 집사)이 서명하게끔 결정되었다. 그리고 “도르트 교회 질서(Dordtse kerkorde)”도 역시 작성되었고, 네덜란드 “국역성경(Statenvertaling)”도 번역되는 계기가 되어 최종적으로 1637년에 출간되었다.<sup>8)</sup> 도르트 회의를 지금도 개혁파 신자들은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은 “Wij strijden voor de Dordtse leer, omdat die is van God de Heer!(우리는 도르트의 가르침을 위해 싸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sup>9)</sup>

도르트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연대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509년 칼빈(1509-1563) 출생
1519년 베자(1519-1605) 출생
1559년 아르미니우스(1559-1609) 출생
1564년 칼빈 사망
1587년 아르미니우스, 암스테르담에서 설교자로 봉직
1590년 아르미니우스, 개혁주의의 예정론 거부
1592-3년 아르미니우스, 로마서 강해(예지예정 겨남)

1618년 11월 13일 도르트 회의 개최, 국외 특사단 9개와 국내 특사단 10개 참여, 총 34명의 외국 특사들 참여
1618년 12월 6일 총 13명의 아르미니우스파 신학자가 도르트 회의에 참여 시작
1619년 1월 14일 아르미니우스파 신학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사유로 도르트 회의에서 쫓겨남

7) 아래 논문은 도르트 총회와 신조가 가진 목회적 의의를 여러 면에서 지적한다. 김재윤, “도르트 총회와 신조에서 신학적 목회적 측면의 균형,” 「한국개혁신학」 59 (2018): 12-47.

8)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XV-XVI; Goudriaan and Van Lieburg, “Introduction,” XI.

9) Goudriaan and Van Lieburg, “Introduction,” XII.

론 주장; 롬 8:29 참조)	1619년 5월 6일 도르트 신조 발표, “흐로띠 캐르끄(Grote Kerk)”에서 공적 낭독
1602년 아르미니우스, 레이든 대학 교수들(유니우스)과 논쟁	1619년 7월 혹은 8월에 ‘원래의 회의록(Acta Authentica)’ 원성, 페스투스 험미우스(Festus Hommius)와 쥐트편의 목사였던 세바스티안 담만(Sebastiaan Damman)이 작업 <sup>10)</sup>
1603년 아르미니우스, 레이든 대학의 교수 취임	1619년 늦어름에 담만이 “축약된 회의록(Acta Contracta)” 편집 작업 완성 <sup>11)</sup>
1604년 아르미니우스, 레이든 대학의 교수 고마루스와 논쟁	1620년 2월 29일 “출간된 회의록(the Published Acta)” 원성, 위원회(폴리안더[Polyander; 레이든 대학 교수], 험미우스, 콜로니우스[Colonus], 뤼디우스[Lydius], 딥베티우스[Dibbetius], 힐레니우스[Hillenius]로 구성)가 작업함 <sup>12)</sup>
1605년 베자 사망	
1608년 퀄란드와 서(西)프리슬란트 고등평의회에서 아르미니우스 논쟁 다툼	
1609년 아르미니우스 사망	

도르트 회의의 결과로 나온 도르트 신조에서 다뤄진 내용은 결코 보기에 구원론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인간론은 신론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도르트 신조는 구원론이 인간론 및 신론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인간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때까지 도르트 신조의 인간론에 대한 연구는

10) 현대의 비평본으로 역사상 최초로 출간된 아래의 작품이 있다. Donald Sinnema and Janika Bischof eds., “Acta Authentica,”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3-187.

11) 현대의 비평본으로 역사상 최초로 출간된 아래의 작품이 있다. Janika Bischof and Donald Sinnema eds., “Acta Contracta,”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337-466.

12) Festus Hommius et al. eds, *Acta Synodi Nationalis, in nomine Domini nostri Iesu Christi, autoritate DD. Ordinum Generalium Foederati Belgii provinciarum, Dordrechti habitae anno MDCXVIII et MDCXIX* (Dordrecht: Isaac Elzevir, 1620). 이 작품 역시 위의 각주 1에서 언급한 ADSND 시리즈에서 출간 중이다.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었다. 외국 문헌 중에는 아자 하우드리안(Aza Goudriaan)이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인간론에 대해 도르트 총회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다룬 연구물이 있다.<sup>13)</sup> 하지만 그의 연구는 너무 “기능주의 심리학(faculty psychology)”의 측면에서 인간의 지성, 정서, 의지 문제에만 집중했고,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도르트 회의 기록<sup>14)</sup>을 많이 참조했기에, 정작 도르트 신조 자체에 나타난 인간론을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로는 박재은의 논문이 있으나 이 역시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만 집중하였기에, 인간론 전체에 관심을 가진 본 연구와는 연구의 방향이 다른 연구였다.<sup>15)</sup>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도르트 신조의 인간론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이 구원론 및 신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또한 결론부에서 제시하듯이 도르트 신조의 인간론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어떤 태도로 자신과 이웃과 불신자들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의미 역시 가진다.

13) Aza Goudriaan, “The Synod of Dordt on Arminian Anthropology,” in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81-106.

14) J. H. Donner and S. A. van den Hoorn,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ale Synode ..., in de jaren 1618 en 1619* (1885, repr. Houten, 1987).

15) 박재은, “도르트 신경의 빛으로 읽는 인간 타락의 4종 원인과 신학적·실천적 합의,” 「조직신학연구」 29 (2018): 178-216.

## II. 도르트 신조와 인간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가 가르친 인간론의 기본적 성격

항론파의 주장은 그들 스스로 제안한 바와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sup>16)</sup>

첫째, 하나님은 장차 믿을 자들을 예지하시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둘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셋째, 신앙은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sup>17)</sup>

넷째, 은혜는 거부할 수 있다.<sup>18)</sup>

다섯째, 신앙이 상실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도르트 총회는 항론파들의 5가지 주장이 비성경적이며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주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16)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XIX. 셀더하위스는 이 다섯 가지 요점이 나중에 도르트 신조의 구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17) 이 부분은 항론파와 개혁파가 상당히 일치하는 지점이다. 그렇지만 항론파는 전적 타락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이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Goudriaan, "The Synod of Dordt on Arminian Anthropology," 94-103을 보라.

18) 항론파가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많이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반대로 개혁파가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구원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B. Hoon Woo, *The Promise of the Trinity: The Covenant of Redemption in the Theologies of Witsius, Owen, Dickson, Goodwin, and Coccei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154 참조.

을 공표했다. 그 다섯 가지 가르침은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불린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이 교리들의 앞 글자를 따라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툴립(TULIP)”이라 불리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도르트 신조의 구조이다.<sup>19)</sup>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U -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 -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T -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I -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 - Perseverance in the faith 성도의 견인

보통 5개 교리들의 순서를 영어 단어의 첫 자를 따서 ‘TULIP’으로 부르지만,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ULTIP’의 순서가 더 옳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용어들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0)</sup> 우리는

19) 도르트 신조의 라틴어 비판본과 영역은 아래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 Bakhuizen van den Brink,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Amsterdam: Bolland, 1976), 225-78; Eberhard Busch, Torrance Kirby, Andreas Mühlberg, and Herman Selderhuis, eds., *Reformierte Bekennnisschriften, Band 3/2, 1605-1675*, 1 editio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gesellschaft, 2015), 87-161; *Ecumenical Creeds and Reformed Confessions*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1988), 122-45;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The Evangelical Protestant Creeds, with Translations*, vol. 3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2), 550-80(라틴어), 581-97(영어). 우리말 번역은 코르넬리스 프롱크, 『도르트 신조 강해』, 황준호 역, 김병훈 신조 감수(서울: 그책의사람들, 2012), 465-511을 참조하고, 수정했다.

20) 리처드 멀러는 그런 오해가 너무 편만해서 “개혁주의의 정원에서 툴립을 뽑아버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툴립(TULIP)’이라는 용어 자체, ‘5대 교리’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 것을 제안한다. 리처드 멀러, “칼빈은 칼빈주의자였는가?”, ‘생명과 말씀’ 5 (2012): 11-79를 보라. 이 논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www.kirs.kr/data/calvin/calvin237.pdf> (2020.5.27. 접속) 그리고 영어 원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goo.gl/lZ5wCp> (2020.6.6. 접속) Richard

단순히 이 용어들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르트 신조가 가르쳤던 교리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칼빈주의는 “5대 교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칼빈주의는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는 성경적 가르침을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그 핵심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도르트 신조는 구원론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 신학계를 위해서 다시금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21)</sup>

도르트 신조는 각각의 부분에서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교리에 대한 아르미니우스파의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여 반박한다.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다룬다. 모두 18장에 걸쳐 개혁주의 교리를 진술하고, 모두 9조항에 걸쳐서 아르미니우스파를 반박한다. 첫째 교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 작정, 예정에 대해 진술한다. 특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신인협력설적 구원론을 배격한다.

둘째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을 다룬다. 모두 9장에 걸쳐 개혁주의 교리를 진술하고, 모두 7조항에 걸쳐서 아르미니우스파를 반박한다. 둘째 교리는 인간의 죄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자유선택의 문제를 다룬다.

셋째와 넷째 교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회심 이후의 태도를 다룬다. 모두 17장에 걸쳐 개혁주의 교리를 진술하고, 모두 9조항에 걸쳐서 아르미니우스파를 반박한다. 셋째와 넷째 교리에 인간론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인간의 죄와 그 유전, 죄인의 상태를 다룬다. 인간이

A. Muller, “Was Calvin a Calvinist?,” in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2012), 51-69.

21) 실제로 도르트 회의에서 다뤄진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을 보면 현대의 E. P. 샌더스, 톰 라이트, 제임스 던 등이 주장하는 “바울에 대한 새 관점”과 매우 유사한 주장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의 잘못된 주장 제 4절을 다룬 내용을 보라.

지닌 자연의 빛에 대해 다룬다. 윤법의 기능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중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 등을 다룬다.

다섯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을 다룬다. 모두 15장에 걸쳐 개혁주의 교리를 진술하고, 모두 9조항에 걸쳐서 아르미니우스파를 반박한다. 다섯 번째 교리는 견인의 은혜가 주는 결과들을 다룬다. 그리고 신자가 지닌 구원의 확신 문제도 다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르트 신조의 다섯 개의 교리는 모두 인간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며, 각각의 항목에서 개혁파의 인간론과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인간론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항론파의 다섯 개의 요점들은 거의 야콥 아르미니우스(Jacob Arminius; 1559-1609)의 작품을 인용함으로써 다뤄졌기에 사실상 아르미니우스의 주장과 진배없었다.<sup>22)</sup>

그렇다면 야콥 아르미니우스의 인간론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무엇일까?<sup>23)</sup> 그의 인간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장차 믿을 것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그의 사상과 관련된다.<sup>24)</sup> 아르미니우스의 이러한 주장을 “예지 예정론(豫知豫定論)”이라고 부른다. 아르미니우스파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부인했다. 이 점이 그의 인간론의 근본 토대이다. 그렇게

22)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XVIII.

23) 아르미니우스의 생애에 대한 소개는 아래 문헌들을 보라. Keith D. Stanglin, *Jacob Arminius: Theologian of Gr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Alrick George Headley, *The Nature of the Will in the Writings of Calvin and Arminius: A Comparative Study* (Eugene, OR: Wipf & Stock, 2017); Anneliese Bieber-Wallmann, “Remonstrantsstreit,” in Volker Henning Drecoll, ed., *Augustin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7), 628-29;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XVII-XIX.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아래 연구서들을 보라. William den Boer, *God’s Twofold Love: The Theology of Jacob Arminius (1559-1609)*, trans. Albert Gootj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Theodoor Marius van Leeuwen, Keith D. Stanglin, and Marijke Tolsma, eds., *Arminius, Arminianism, and Europe: Jacobus Arminius (1559/60-1609)* (Leiden: Brill, 2009).

24)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XVII.

하여 아르미니우스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펠라기우스주의적 인간론의 요소를 기독교 구원론에 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이나 베자의 이중예정설을 반대하였다. 그는 만일 이중예정설이 옳다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5)</sup> 어떤 사람이 먼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르미니우스는 주장했다.<sup>26)</sup>

펠라기우스(약 354-420/440)는 아우구스티누스(354-430)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sup>27)</sup>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단이 되었다. 펠라기우스는 이미 보편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구원을 촉진시키는 역할은 하겠지만,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인간이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은혜가

25) Bieber-Wallmann, “Remonstrantenstreit,” 629. 아르미니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지식이 아니라 다만 예지(foreknowledge)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는 몰리나의 중간지식론과 유사하다. Muller, *God, Creation, and Providence in the Thought of Jacob Arminius*, 163-64; 박성환, “도르트 신조에 관한 설교학적 이해,” 56을 보라.

26) 아르미니우스는 유니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주장했다. Arminius, *Amiculum D. Franc. Junio de praedestinatione per litteras habita collatio* (Leiden: Apud Godefridum Basson, 1613); Arminius, *Opera theologica* (Leiden: Apud Godefridum Basson, 1629), 477; Bieber-Wallmann, “Remonstrantenstreit,” 629에서 재인용.

27) 펠라기우스에 대해서는 아래 문헌들이 중요하다. Volker Henning Drecoll, “Pelagius, Pelagianni,” in *Augustinus-Lexikon*, ed. Cornelius Petrus Mayer et al., vol. 4 (Basel: Schwabe, 2016), 624-66; Winrich A. Löhr, “Pelagius’ Schrift *De natura*: Rekonstruktion und Analyse,” *Recherches Augustiniennes* 31 (1999): 235-94; Winrich A. Löhr, *Pélage et le pélagianisme* (Paris: Cerf, 2015); Gisbert Greshake, “Gnade als konkrete Freiheit; eine Untersuchung zur Gnadenlehre des Pelagius” (Habilitationsschrift, Mainz, Matthias-Grünewald-Verlag, 1972); Sebastian Thier, *Kirche bei Pelagius* (Berlin: De Gruyter, 2015 [First ed. 1999]). 영어권에서 나온 자료로는 아래를 보라. Robert F. Evans, *Pelagius: Inquiries and Reappraisals*, repr. edition (Wipf and Stock, 2010); B. R. Rees, *Pelagius: Life and Letters*, rev. ed. (Rochester, NY: Boydell Press, 1998).

있으면 좀 더 빨리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펠라기우스와는 달리 아르미니우스는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28)</sup> 아르미니우스의 독특한 점은 ‘예지예정’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를 내다보시고 그들을 예정하셨다고 주장했다. 아르미니우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가 필수라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예지예정론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취적 행동을 먼저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인협력설적(synergistic)이다.<sup>29)</sup>

도르트 신조는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아르미니우스의 주장 모두를 배격한다.<sup>30)</sup> 도르트 신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28) 아르미니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하라. Aza Goudriaan, “Augustine Asleep or ‘Augustine Awake?’ Jacobus Arminius’s Reception of Augustine,” in *Arminius, Arminianism, and Europe: Jacobus Arminius (1559/60-1609)*, ed. Theodoor Marius van Leeuwen, Keith D. Stanglin, and Marijke Tolksma (Leiden: Brill, 2009), 51 - 72. 리처드 멀러는 아르미니우스가 예정론과 섭리론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아우구스티누스적 견해를 이탈했다고 최종 평가한다. Richard A. Muller, *God, Creation, and Providence in the Thought of Jacob Arminius* (Grand Rapids: Baker, 1991), 272. 그 외에도 다음 연구들을 참조하라. Richard A. Muller, “Arminius: A Study in the Dutch Reformation,” *Pneuma* 9, no. 2 (Fall 1987): 198 - 99; Richard A. Muller, “Arminius and the Scholastic Tradi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4, no. 2 (November 1989): 263 - 77; Richard A. Muller, “Arminius and the Reformed Tradit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0, no. 1 (Spring 2008): 19 - 48.

29) 보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를 보라. Thier, *Kirche bei Pelagius*, 45, 118, 132-33, 165; Muller, *God, Creation, and Providence in the Thought of Jacob Arminius*, 163; 우병훈,『예정과 언약으로 읽는 그리스도의 구원』(SFC, 2013), 137.

30) 도르트 신조에는 펠라기우스 및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언급들이 도합 8번 나온다. Bieber-Wallmann, “Remonstrantenstreit,” 632에서는 “공식적인 신경의 본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도르트례흐트에서 신학자들은 전체적으로 7번 상대방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정죄했다(Im offiziellen Wortlaut der *Canones* findet sich kein expliziter Bezug auf Augustin, insgesamt siebenmal beschuldigen die Theologen in Dordrecht allerdings die Gegner des Pelagianismus).”라고 한다(볼드체는 필자의 것). 하지만 라틴어 본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세어보면 7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아르미니우스파 배격),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펠라기우스파 배격). 도르트 신조는 성도의 언약적 삶에 있어서 예정론과 성령론을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펠라기우스적이지도 않고 아르미니우스적이지도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및 사역을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특히 그러한 점은 이하에서 보듯이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인간론에 매우 잘 드러난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르미니우스가 개혁파 신학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베자에게서 배웠고, 베자와 그리나이우스의 추천을 받아서 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sup>31)</sup>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리처드 멀러는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이 개혁파 신학과 여러 지점들에서 상응했을지라도 핵심적인 선택 교리와 구원의 서정 교리에 있어서 개혁파 고백에서 떠났다고 주장한다.<sup>32)</sup> 그렇다면 아르미니우스파는 이단인가? 이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아르미니우스파를 통칭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아르미니우스파에도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미니우스파를 일괄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인물별로 구분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해 보인다.<sup>33)</sup>

아니라, 8번임을 알 수 있다.

- 31) 베자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였다. 그리나이우스(Johann Jakob Grynæus, 1540-1617)는 바젤과 하이델베르크에서 구약과 신약을 가르쳤던 개혁파 신학자였다. 바젤에서 구약 교수(1575-1584), 하이델베르크에서 신약 교수(1584-1586), 다시 바젤에서 신약 교수(1586-† 1617).
- 32) Richard A. Muller, "Arminius and the Reformed Tradit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0, no. 1 (Spring 2008), 48: "His [=Arminius's] significance is not to be denied, and it rests, in large part, on the fact that despite its numerous points of correspondence both with the Reformed theology of his time and with the teachings of his colleagues at Leiden, in several crucial points concerning predestination and the *ordo salutis* Arminius's theology was not confessionally Reformed." (볼드체 "not"에 의한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 III.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인간론

#### 1.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도르트 신조는 전체에 걸쳐서 인간에 대한 매우 풍성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첫째 교리부터 마지막 다섯째 교리 모두 각 교리의 제 1장은 인간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sup>34)</sup> 그리고 각 교리의 마지막 장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soli Deo gloria)"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끝이 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도르트 신조는 다섯 번째 교리의 잘못된 주장 반박 부분 제 2절에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도르트 신조는 타락한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심지어 신자의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고

33) 학자에 따라서는 도르트 신조에서 아르미니우스파와 펠라기우스의 유사성을 여러 곳에서 드러낸 것은 아르미니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로마 가톨릭파의 유사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판단하기도 한다. 로마 가톨릭파 아르미니우스파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아래 논의들을 보라. David D. Hall, *The Puritans: A Transatlantic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제9장; Joel R. Beeke and Paul M. Smalley, *Prepared by Grace, for Grace: The Puritans on God's Way of Leading Sinners to Christ*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3), 95.

34) 이하에서 도르트 신조의 표시는 첫째 교리, 제 1장은 1, a1로 표기하고, 첫째 교리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제 1절은 1, r1로 표기하겠다. 다만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가 함께 엮여 있기에 이 경우에는 3/4, a1(셋째와 넷째 교리의 제 1장)과 같은 식으로 표기하겠다.

있다.<sup>35)</sup>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그들 모두가 멸망 받아 마땅하다(1, a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1, a2). 하나님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신다(1, a3).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1, a4). 불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그 자신에게 있다(1, a5). 모든 인간은 멸망 받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었다(1, a6; *decretum illud electionis et reprobationis in verbo Dei revelatum*).<sup>36)</sup> 선택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상태로부터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다(1, a7).<sup>37)</sup> 모든 자들이 멸망 받아 마땅한데,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1, a7).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의 동일한 작정만이 있다(1, a8). 선택의 근거는 예지적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선택이 믿음과 순종과 선행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1, a9). 선택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1, a).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택자들의 수도 변할 수 없다(1, a11).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르트 신조의 선택론이 아주 인색한 구원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빙크는 “선택받은 자들의 수효가 ... 다른 신학에서보다 더 적은 것으로 여겨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sup>38)</sup> 물론 우리는 선택받은

35) 아르미니우스는 피조물의 자율성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신학을 전개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의존성을 크게 제한시켰다. 그리하여 코페르니쿠스 이후의 과학적 태도, 즉 신적 질서로부터 구분되는 우주라는 관념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는 사상을 전개했다. 아래를 보라. Richard A. Muller, “God, Predestination, and the Integrity of the Created Order: A Note on Patterns in Arminius’ Theology,” in *Later Calvinism*, ed. W. Fred Graham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4), 431.

36)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52-53.

37) 이런 본문들이 도르트 신조가 타락후선택설(*infralapsarianism*)을 지지함을 보여준다.

자의 숫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처럼 사고하면 구원 받는자가 더욱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한다면 구원 받는 자의 숫자가 거의 혹은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구원 받은 자는 믿음의 열매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강해진다. 그 열매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충성스런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탄식, 그리고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증 등이다(1, 12a).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며,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1, a13). 선택교리는 선지자, 예수님,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며, 선택은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1, a14).

모든 인간이 택함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택함 받는다. 하지만 유기된 자들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의 결과로서 스스로 파멸에 빠진 것이다(1, a15).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지만 유기는 인간의 죄의 결과이다.<sup>39)</sup> 도르트 신조는 이러한 사실을 자주 강조한다. 선택교리는 신자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로써 순종하게 한다(1, a16). 신자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며 택함 받아 구원 받았음을 의심해

38) 바빙크, 『개혁교의학』, 4:863(#579),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개혁파 신학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수효가 그 어떤 이유로나 그 어떤 관점에서도 다른 신학에서보다 더 적은 것으로 여겨질 필요는 없다. 사실 중요한 점에 있어서, 개혁파 고백이 다른 어떤 기독교 고백보다 더 관대하고 더 넓은 견해를 지닌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3:582(#406), “보편구원론파는 그리스도 사역의 가치와 능력을 축소시키려고 했다. 그들이 양적인 것을 얻은 반면 -단지 그렇게 여겨질 뿐이다- 질적인 것을 잃었다.” 후자의 인용에서 바빙크가 생각했던 “보편구원론파”는 로마 가톨릭과 항론파의 견해를 뜻한다. 이 각주와 이하에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인용은 아래의 번역을 참조하였으며, 페이지 뒤 괄호 안의 #표시는 단락을 표시한 것이다.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총 4권, 박태현 역(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39) 반대로 항론파는 불신앙을 유기의 원인으로 규정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한병수, “도르트 신경의 유기론,” 『장로교회와 신학』 11 (2014): 260-81을 보라.

서는 안 된다(1, a17). 로마서 9장이 선택에 대해 잘 가르친다.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1, a18).

이상의 내용이 선택교리에 대한 도르트 신조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항론파는 이런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 항론파는 믿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체적이라고 주장한다(1, r1). 선택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항론파는 아래와 같이 선택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1, r2; 1, r5).<sup>40)</sup>

일반적이며 불명확한 선택 (generalem et indefinitam)	특별하고 분명한 선택 (singularem et definitam)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으며 파괴될 수 있고, 조건적인 선택 (incompletam, revocabilem, non peremptoriam, sive conditionatam)	완전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파괴될 수 없고 절대적인 선택 (completam, irrevocabilem, peremptoriam, sive absolutam)
믿음에 이르는 선택 (electio ad fidem)	구원에 이르는 선택 (electio ad salutem)

항론파는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주신다고 주장했다(1, r3). 다시 말해 선택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성향(*dispositus*)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 r4). 이에 대해 도르트 신조는 “그들이 펠라기우스 냄새를 피운다(*Pelagium enim sapiunt*)”고 적고 있다(1, r4).<sup>41)</sup> 그들은 순종이나 견인 등은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했다(1, r5).

항론파는 택자들 가운데 일부는 멸망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1, r6). 그리고 신자는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1, r7). 항론파는 유기의 작정이란 없다고 주장했다(1, r8).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40)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57.

41)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57.

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낫고 가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 r9). 도르트 신조는 이 모든 항론파의 주장들이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2.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도르트 신조의 둘째 교리는 기독론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인간론에 대한 많은 중요한 가르침이 나타난다. 먼저 인간의 죄를 지적한다. 인간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2, a1).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증으로 주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2, a2).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victima*) 이자 만족(*satisfactio*)이다.<sup>42)</sup> 그 가치는 무한하여 온 세상의 죄를 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2, a3).<sup>43)</sup>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발적이었으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본질을 지니신 분의 죽음이었다. 그분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의시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2, a4).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2, a5). 선택은 제한적이지만, 복음의 선포는 보편적이다(2, a5). 복음을 듣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42) 아르미니우스는 고전 11:25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 희생 이론이 아르미니우스 자신이 제시했던 신인협동설적 은혜론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를 보라. Thier, *Kirche bei Pelagius*, 305: “Für Pelagius dagegen ist die aus 1 Kor 11,25 abgeleitete Opfertheorie nicht akzeptabel, da sie mit dem synergistischen Ansatz seiner Gnadenlehre nicht vereinbar ist.”

43)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1. “Hæc mors Filii Dei est unica et perfectissima pro peccatis victimæ et satisfactio, infiniti valoris et pretii, abunde sufficiens ad totius mundi peccata expianda.”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 희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2, a6). 이처럼 도르트 신조는 그리스도 희생의 가치의 무한성과 불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성격을 동시에 지적한다. 말하자면, 속죄의 가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충분하지만, 불신자에게는 효력이 없음(sufficient for all, not efficient for the non-believer)”을 가르치는 셈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2, a7).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목적 가운데 된 일이다. 이신칭의의 선물을 택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새 언약이 확증되었다. 이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구원 능력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신자는 믿기 전후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2, a8). 택자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뜻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최종적 종말이 오면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것이다(2, a9).

이런 가르침과는 달리 항론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예정하신 것은 어떤 특정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하고 결정된 계획 없이(*sine certo ac definito consilio*)” 행하신 일이라고 주장한다(2, r1).<sup>44)</sup> 그렇기에 심지어 구원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공로의 필연성과 유익성과 존엄성은 존속된다고 보았다 (2, r1). 항론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새로운 은혜언약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2, r2).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자유선택에 달려 있다(*a libero hominis arbitrio pendeat*)”고 주장했다

44)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3. “Qui docent, ‘Quod Deus Pater Filium suum in mortem crucis destinaverit, sine certo ac definito consilio quemquam nominatim salvandi, adeo ut impetrationi mortis Christi sua necessitas, utilitas, dignitas sarta tecta, et numeris suis perfecta, completa atque integra constare potuisset, etiamsi impetrata redemptio nulli individuo unquam acta ipso fuisse applicata.’”

(2, r3). “그들이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지옥에서부터 다시 부활시킨다 (*Pelagianum errorem ab inferis revocant*)”라고 도르트 신조는 적고 있다.<sup>45)</sup>

항론파는 계속해서 믿음 그 자체와 믿음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한다(2, r4).<sup>46)</sup> 그들에 따르면, 은혜언약에 들어간 자들은 원죄의 죄책과 저주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면책된다(2, r5). 항론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셨는데, 영생을 얻고 못 얻고의 차이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2, r6). 도르트 신조는 이런 생각을 “펠라기우스의 독소(*Pelagianismi venenum*)”라고 부른다(2, r6).<sup>47)</sup> 항론파는 선택한 자들은 이미 선택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따로 그들을 위해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냐고 반문한다(2, r7).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 3. 도르트 신조 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회심 후의 태도

도르트 신조의 셋째와 넷째 교리는 개혁주의 인간론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교리들이다. 그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최초의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의롭고 순결했으며 전(全) 인격은 성결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sed Diaboli instinctu, et libera sua voluntate a Deo desciscens*)” 이 특별한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 사악한 마음과 비참한 어두움과

45)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3.

46) 이것은 바울에 대한 새 관점 학파와 유사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보라. 우병훈, “루터의 칭의론과 성화론의 관계: 대(大)『갈라디아서 주석』(1535년)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46 (2018): 69-116.

47)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4.

헛됨과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악하고 불순종하며 마음과 의지는 완악해지고 감정이 불결해져 버렸다(3/4, a1).<sup>48)</sup> 이것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가르침이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녀를 낳았고 타락한 조상에게서 또한 타락한 후손들이 나게 되었다.<sup>49)</sup> 따라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니고 태어났다. 이것은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듯이 “모방을 통해서(*per imitationem*)”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보건대 사악한 본성이 유전된 것이다(3/4, a2).<sup>50)</sup> 이것은 원죄에 대한 가르침이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선행을 할 수 없고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생하는 은혜가 없이는(*absque Spiritus Sancti regenerantis gratia*)”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 죄악에서 새롭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3/4, a3).<sup>51)</sup> 이것은 인간의 노예 상태에 대한 가르침으로 루터의 가르침과 일치한다.<sup>52)</sup>

제 4장은 이렇게 가르친다. 인간에게는 타락한 후에도 “어느 정도 자연의

48)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4.

49) 박재은, “도르트 신경의 빛으로 읽는 인간 타락의 4종 원인과 신학적·실천적 함의,” 190-204에 따르면, 도르트 신조는 타락의 질료적 원인으로 사탄과 사탄의 유혹(혹은 충동)을, 타락의 형상적 원인으로 인간의 교만과 탐심에 근거한 불신앙을, 타락의 작용 원인으로 인간의 자유 선택 의지를, 타락의 목적 원인으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기쁘신 숨겨진 뜻으로 제시하였다.

50)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4.

51)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4.

52) 우병훈, 『처음 만나는 루터』(서울: IVP, 2017), 175-76을 보라. 루터의 『노예의지론』의 원제는 “*De servo arbitrio*”이다. 작품은 아래의 바이마르(Weimar)판 루터 전집과 영역본 루터 전집에 실린 것을 보라. Martin Luther,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Ausgabe (Weimar: H. Bohlau, 1883-), 18:600-787; Martin Luther, *Luther's Works*, Vol. 33: Career of the Reformer III, ed. Jaroslav Jan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9), 3-295. 이하에서 이 전집들은 각각 WA와 LW로 약칭한다.

빛(*lumen aliquod naturæ*)”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사물에 관하여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지식이 있음으로 외부적인 행위를 통하여 도덕과 선에 관한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연의 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으로, 또한 참 회심으로 이끌어가게는 하지만, 인간은 이 자연의 빛을 자연의 사물 속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인간은 갖가지 면에서 이 빛을 전적으로 오염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는 행위를 통하여 불의하게 사용했던 것이다(3/4, a4). 여기에서 “자연의 빛”이란 하나님과 자연과 윤리와 관련된 희미한 지식이다. 이것은 회심을 위한 방편으로 주어졌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제 5장은 이렇게 가르친다. 이와 동일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별된 유대인인 모세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이 십계명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인간을 치유하거나 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지만, 죄의 심각성과 그 죄악 속의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육신의 연약함으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이 율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3/4, a5).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자연법의 핵심을 담고 있지만, 책망적 기능만 한다는 도르트 신조의 가르침이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2권 7장에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율법의 제 1용도는 흔히 “선도적 용법”이라 부르는 것으로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2.7.3-9). 율법의 제 2용도는 보통 “시민적 용법”이라 부르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2.7.10-11). 하나님은 악인들의 정욕이 날뛰는 것을 율법의 굴레로 억제하신다(2.7.11). 율법의 제 3용법은 보통 “규범적 용법”이라 불린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기능’으로서, 성화의 삶의 지침이 된다(2.7.12-13).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sup>53)</sup>

도르트 신조의 셋째와 넷째 교리, 제 6장은 “그러므로 자연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말씀 내지 화목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써 행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구약이나 신약 아래 있는 어느 누구든지 이 소식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하셨다.”라고 적고 있다(3/4, a6).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제 7장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이 자연의 빛을 더욱 잘 사용해서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할 따름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은 그들은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심하여 낮추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3/4, a7).

제 8장은 “진실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에 의해 부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 안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선언하셨는데, 즉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는 그에게로 나와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고 한다(3/4, a8).

제 9장은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53) 칼빈은 율법의 이 세 번째 용도를 디모데후서 3:16에서도 발견한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칼빈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갈 3:19에 대한 주석을 보라.

John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e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96[1965]), 61.

복음이 잘못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그 인간 자체에 잘못이 있다.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이는 급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며, 또 어떤 이들은 즉시 기쁨으로 빌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펫박을 당할 때는 곧 넘어지고, 다른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다(마 13장).”라고 적고 있다(3/4, a9).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그 자신이 문제라는 가르침이다.

제 10장은 “그러나 복음에 의한 부름에 순종하여 돌아친 사람들은 그것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돌아김이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마치 펠라기우스의 이단들이 교만하게 주장하는 것처럼[*quod superba Pelagii hæresis statuit*])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sup>54)</sup>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돌아키게 하심으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와 연결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빛으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대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적는다.

제 11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사역들을 열거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서 기쁘신 선을 이루시며 참 회개를 이루실 때 그들에게 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하며 분별토록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영으로서 사람의 깊은 곳에까지 임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게

54)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6.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며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선하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3/4, a11).”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를 특히 강조한다.

제 12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된 자는 그 마음이 변화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시되 죽음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생케 하는 힘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음을 외침으로나 도덕적 권면으로, 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후에 인간 편에서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가장 능력 있으며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라우며 신비스럽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 중생의 능력은 창조나 죽음에서의 부활 등에 끽지않게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분명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중생케 함으로 실제적인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뤄지고 효력을 낼뿐만 아니라 이 효력의 결과는 그 자체로 활동적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함에 이른다고 말함이 옳은 것이다(3/4, a12).”

제 13장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의 방식이(*Modum hujus operationis*) 세상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신자로 하여금 구세주를 믿고 사랑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가르친다.<sup>55)</sup>

제 14장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의 뜻을 따라 받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정도의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며 영접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의지를 정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뜻이나 행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듯이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3/4, a14).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실 때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하나님은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는 행위도 주신다고 가르친다.

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인간에게 주실 때에 그 어떤 책임이 있으신 것은 아니다. 보상에 대한 기초로서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빚지실 수가 있는가? 죄와 거짓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무감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이다.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인 선물과는 관계없이 그 스스로의 상태에 만족하든지 또는 위급함을 못 느낀 채 영생의 선물이 아닌 세상의 소유물로 협된 자랑을 하게 되든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입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가장 훌륭한 태도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의 깊은 비밀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가 남보다 유별난 것처럼 교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한다(3/4, a15). 신자는 자신 안에서는 겸손해야 하며, 다른 신자들을 대할 때에는 최고의

55)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7.

훌륭한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불신자를 향할 때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중요하다. 신자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 때문에 겸손해야 하다. 그 은혜가 다른 신자 안에도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축면을 주목해야 한다. 당장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에는 궁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한다.

아울러, 도르트 신조는 보상에 대해 철저하게 거부한다.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자의 종말론적 보상 및 상급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은 대체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급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했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상급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상급이 성령의 자기인정(self-acknowledgement)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로주의적이지 않은 상급론을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엡 1:14, 히 7:22). 아울러 성령 역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후 1:22, 5:5).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의 사역을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제 16장에서는 “그러나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이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피조물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또한 인류에게 번진 죄악이 인간의 본성조차 빼앗아간 것은 아니고 파멸과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 것뿐이다. 이처럼 중생의 은혜는 인간을 무감각한 사물로 여기거나 인간의 의지나 그 본성조차 모두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치료하며 바르게 해주고, 동시에 그 은혜에 힘있게 따르도록 해주며, 전에는 육적인 반역과 저항이 가득 찬 곳에 기꺼이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참되고 영적인 의지의 자유가 회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선한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는 이 타락에서 재생할 아무런 소망도 얻지 못하고 죄에 빠져 들어갈 뿐이다.”라고 한다(3/4, a16). 타락 이후에 이성과 의지와 본성이 있어서 사물이나 본성이 변한 자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신자가 되어야 참되고 영적인 의지의 자유가 회복된다고 가르친다.

제 17장에서 “복음은 중생의 씨앗이며, 영혼의 양식이다.”는 가르침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도하심에는 무한한 자비와 선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베풀시는 그의 가르침의 길이 있는데,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복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케 하는 씨앗으로, 또한 영혼의 양식으로 정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사도들과 선생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인간의 교만을 없애도록 교훈하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는 거룩한 복음의 훈계를 따라 성례를 지켜나가고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도록 명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인간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란 교훈을 통해 내려지기 때문이며 우리가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면 할수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구원의 열매와 효력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어야 할 것이다(3/4, a17).”

이상의 가르침과는 달리 항론파는 원죄를 부정한다(3/4, r1). 인간의 의지가 타락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3/4, r2).<sup>56)</sup> 특별히 아래와 같은 주장은

56) 아래의 분석을 참조하라. 박재은, “도르트 신경의 빛으로 읽는 인간 타락의 4중 원인과 신학적·실천적 함의,” 201: “항론파는 타락의 작용 원인과 목적 원인을 같은 원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즉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타락을 작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즉 타락의 목적 원인)을 타락 사건 속에서 제거해버렸고 거기에 인간의 자유 선택 의지를 채워 넣어 타락의 원인을 인간의 의지에 집중해버렸다.”

항론파의 핵심 사상을 보여준다. “영적인 사망에 있어서 영적 은사들은 인간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의지(意志)는 그 자체에 있어서 결코 부패된 것이 아니요 다만 깨달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둔화됨으로 의지가 방해를 받았을 뿐이다. 이 방해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는 그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지 그 자체로서, 원함으로 선택하든지 원치 않음으로 버릴 수 있든지 등의 온갖 선한 행위를 보일 수 있다(3/4, r3).” 의지는 부패되지 않았으니 다만 지성적 변화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노먼 피어링은 아르미니우스파에게는 지성이 의지를 선도한다고 주장했는데 적절한 주장이다.<sup>57)</sup> 이에 대해 아자 하우드리안도 동의한다.<sup>58)</sup> 또한 리처드 멀러는 아르미니우스가 구원론에 있어서 지성이 사령탑 역할을 하는 신학을 전개했다고 주장한다.<sup>59)</sup> 이런 주장들이 뜻하는 바는 아르미니우스 신학에서 의지는 타락 이후에 여전히 존재하기에 문제가 생긴 지성이 회복되는 일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항론파는 타락한 이후에도 의지가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4, r4). 그들은 타락한 자연인도 일반은총 즉 자연의 빛을 잘 사용하여 구원 그 자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3/4, r5).<sup>60)</sup> 이미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위한 수단들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4, r5). 항론파는 회심 시에 의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믿음도 선물이

57) Norman S. Fiering, “Will and Intellect in the New England Mind,”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A Magazine of Early American History* 29 (1972): 515-58 (특히, 537, 550-51).

58) Goudriaan, “The Synod of Dordt on Arminian Anthropology,” 88, 105-6.

59) Richard A. Muller, “The Priority of the Intellect in the Soteriology of Jacob Arminiu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5 (Spring 1993): 55-72.

60)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569. “Hominem corruptum et animalem gratia communi, quæ ipsis est lumen naturæ, sive donis post lapsum relictis, tam recte uti posse, ut bono isto usu majorem gratiam, puta evangelicam, sive salutarem, et salutem ipsam gradatim obtinere possit.”

아니라고 주장했다(3/4, r6). 그들은 은혜란 “부드러운 총고(*lenem suasionem*)”라고 주장했다(3/4, r7). 도르트 신조는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생각이라고 비판한다(3/4, r7).

항론파는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께 저항 가능하며, 인간의 중생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3/4, r8). 그들은 은혜가 자유의지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보았다(3/4, r9). 도르트 신조는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교리라면서 정죄한다(3/4, r9).

#### 4. 도르트 신조 다섯째 교리: 성도의 견인

도르트 신조 다섯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을 다루는데 상당히 위로가 된다. 신자라 할지라도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죄의 지배와 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다(5, a1). 성도는 죄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5, a2). 도르트 신조는 겸손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가르친다(5, a3). 신자가 어떤 경우에는 정욕에 유혹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5, a4). 신자가 죄를 지어서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5, a5). 신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성령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시다(5, a6). 하나님은 썩지 않은 믿음의 씨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다(5, a7). 성도의 견인은 삼위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다(5, a8). 그런데 신자가 가진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견인에 대한 확신이 차이는 날 수 있다(5, a9).

중요한 것은 견인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며, 성령께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점이다(5, a10). 신자도 의심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하도록 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5, a11).

구원과 견인의 확신은 여러 가지 유익을 주므로 신자에게 확신은 유익하다(5, a12). 어떤 자들은 확신이 안일함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확신은 양심이 고통 받지 않게 해 준다(5, a13). 성도를 견인으로 이끄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권징 포함)과 성례이다(5, a14). 이런 확신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신자만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5, a15).

이에 대해서 항론파는 견인은 선택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유의지로써 구원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5, r1). 그들은 견인이란 성도에게 달린 것이라 본다(5, r2).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그런 것은 펠라기우스주의적이며,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려고 시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5, r2). 도르트 신조는 타락한 인간에게 영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신자에게도 자유가 은혜보다 더 앞선다고 보는 견해를 매우 비판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다.

항론파는 참된 신자라도 구원에서 탈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5, r3).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로마서 5:8-9를 인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반대한다. 항론파는 “참 신자요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울 수 있으며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5, r4). 또한 “우리는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미래에 있을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도 말한다(5, r5).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그런 생각은 로마 기톨릭의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다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항론파는 견인교리가 신자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 본다(5, r6).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그런 생각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소치라며 반박한다.

항론파는 “잠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과 칭의를 받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는 단지 그 기간에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5, r7).”라고 말한다. 또한 “중생함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된다든지 또는 몇 번씩 새롭게 된다는 일은 불합리한 말이다(5, r8).”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하여 믿음에 거해야 할 것을 그 어디에서 고 기도하신 적이 없다(5, r9).”라고도 가르친다.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그런 모든 생각을 반대한다.

#### IV. 결론 및 적용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인간론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아래와 같은 적용점은 특히 중요하다.

첫째, 인간의 죄성을 기억해야 한다. 도르트 신조는 매 신조의 첫째 항목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인간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선택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등 중요한 교리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둘째, 구원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도르트 신조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속죄,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도록 한다. 이처럼 신자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올타리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호흡한다. 그렇기에 신자는 낙망하지도 교만하지도, 타자에게 위선적이지도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할 뿐이다.

셋째, 신자는 자기 자신 안에서는 겸손하고,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는 관용하

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궁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도르트 신조에서 가르치는 인간론이 남용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중요한 행동지침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동료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을 대할 때에는 그들의 최선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나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또한 도르트 신조가 선택론을 강조한다고 해서 결코 불신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신자는 불신자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여 기도해야 한다.

넷째, 신자는 변화된 본성을 가졌기에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도르트 신조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와 둘째 교리에서는 성부와 성자를 강조했다면, 셋째와 넷째 교리, 그리고 다섯째 교리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매우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성령은 새 언약의 영으로서 신자가 견인하도록 도우신다. 신자는 변화된 본성으로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 신자의 삶은 갈수록 성령으로 더더욱 충만해져야 한다. 성령에 대한 이러한 강조 때문에 도르트 신조는 개혁파 신자가 아르미니우스파나 로마 가톨릭보다 더욱 선행을 열심히 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섯째, 신자는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도르트 신조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아주 냉랭한 교리를 가르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루터는 “믿음이란 것,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했다.<sup>61)</sup>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보다 더 강함을

61) WA 56,486,7: “proficere, hoc est semper a novo incipere.” 루터는 “발전한다는 것은 항상 시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proficere est nihil aliud, nisi semper incipere.)”라고도 한다(WA 56,239,26ff).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르트 신조가 매번 끝 항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담긴 찬양을 표현한 것이다.

도르트 신조에 담긴 인간론을 다루었지만 신론이 많이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오히려 도르트 신조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도르트 신조의 중요한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Soli Deo Gloria)!

## 참고문헌

- 김요섭. “공동의 신앙고백 위에서의 교회의 일치: 도르트 회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장로교신학회」 11 (2014): 136-63.
- \_\_\_\_\_.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적 교회론 연구.” 「개혁논총」 30 (2014): 359-95.
- 김재윤. “도르트 총회와 신조에서 신학적 목회적 측면의 균형.” 「한국개혁신학」 59 (2018): 12-47.
- 박성환. “도르트 신조에 관한 설교학적 이해.” 「한국개혁신학」 59 (2018): 48-84.
- 박재은. “도르트 신경의 빛으로 읽는 인간 타락의 4중 원인과 신학적·실천적 함의.” 「조직신학연구」 29 (2018): 178-216.
- 바빙크, 헤르만. 『개혁교의학』. 총 4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우병훈. 『그리스도의 구원』. SFC, 2016.
- \_\_\_\_\_. “도르트 회의와 아우구스티누스: 파레우스의 ‘조사’와 영국 특사들의 ‘의견서’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9 (2018): 133-74.
- \_\_\_\_\_. “루터의 칭의론과 성화론의 관계: 대(大)『갈라디아서 주석』(1535년)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46 (2018): 69-116.
- 한병수. “도르트 신경의 유기론.” 「장로교회와 신학」 11 (2014): 260-81.
- Arminius, Jacobus. *Amica cum D. Franc. Junio de praedestinatione per litteras habita collatio*. Leiden: Apud Godefridum Basson, 1613.
- \_\_\_\_\_. *Opera Theologica*. Leiden: Apud Godefridum Basson, 1629.
- Bakhuizen, van den Brink.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Amsterdam: Bolland, 1976.
- Beeke, Joel R. and Paul M. Smalley. *Prepared by Grace, for Grace: The Puritans on God's Way of Leading Sinners to Christ*. Grand Rapids, MI: Reformation

## Heritage Books, 2013.

- Bieber-Wallmann, Anneliese. “Remonstrantenstreit.” In *Augustin Handbuch*, edited by Volker Henning Drecoll, 627-33.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Bischof Janika, and Donald Sinnema eds., “Acta Contracta.”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ited by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337-46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Boer, William den. *God's Twofold Love: The Theology of Jacob Arminius (1559-1609)*. Translated by Albert Gootjes. Göttingen; Oakville, CT: Vandenhoeck & Ruprecht, 2010.
- Busch, Eberhard, Torrance Kirby, Andreas Mühlung, and Herman Selderhuis, eds. *Reformierte Bekennnisschriften*. Band 3/2, 1605-1675. 1 editio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gesellschaft, 2015.
- Calvin, Jea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Translated by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96.
- Drecoll, Volker Henning, ed. *Augustin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_\_\_\_\_. Drecoll, Volker Henning. “Pelagius, Pelagiani.” In *Augustinus-Lexikon*, edited by Cornelius Petrus Mayer, Robert Dodaro, and Christof Müller, 4:624-66. Basel: Schwabe, 2016.
- Ecumenical Creeds and Reformed Confessions*.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1988.
- Evans, Robert F. *Pelagius: Inquiries and Reappraisals*. Reprint edition. Wipf and Stock, 2010.
- Fiering, Norman S. “Will and Intellect in the New England Mind.”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A Magazine of Early American History* 29 (1972):

515-58.

- Goudriaan, Aza. "‘Augustine Asleep’ or ‘Augustine Awake?’ Jacobus Arminius’s Reception of Augustine." In *Arminius, Arminianism, and Europe: Jacobus Arminius (1559/60-1609)*, edited by Theodoor Marius van Leeuwen, Keith D. Stanglin, and Marijke Tolsma, 51-72. Leiden: Brill, 2009.
- \_\_\_\_\_. Goudriaan, Aza. "The Synod of Dordt on Arminian Anthropology." In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edited by Aza Goudriaan and Fred Van Lieburg, 81-106. Leiden: Brill, 2011.
- Greshake, Gisbert. "Gnade als konkrete Freiheit; eine Untersuchung zur Gnadenlehre des Pelagius." Habilitationsschrift, Matthias-Grünewald-Verlag, 1972.
- Hall, David D. *The Puritans: A Transatlantic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 Headley, Alrick George. *The Nature of the Will in the Writings of Calvin and Arminius: A Comparative Study*. Eugene, OR: Wipf & Stock, 2017.
- Hommius, Festus et al. eds. *Acta Synodi Nationalis, in nomine Domini nostri Iesu Christi, autoritate DD. Ordinum Generalium Foederati Belgii provinciarum, Dordrechti habitae anno MDCXVIII et MDCXIX*. Dordrecht: Isaac Elzevir, 1620.
- Israel, Jonathan.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Leeuwen, Theodoor Marius van, Keith D. Stanglin, and Marijke Tolsma, eds. *Arminius, Arminianism, and Europe: Jacobus Arminius (1559/60-1609)*. Brill’s Series in Church History; d. 39. Leiden: Brill, 2009.
- Löhr, Winrich A. *Pélage et le pélagianisme*. Paris: Cerf, 2015.
- \_\_\_\_\_. "Pelagius’ Schrift De Natura: Rekonstruktion und Analyse." *Recherches Augustiniennes* 31 (1999): 235-94.

- Luther, Martin.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Vol. 18. Weimar Ausgabe. Weimar: H. Bohlau, 1883-.
- \_\_\_\_\_. *Luther’s Works*. Vol. 33. Edited by Jaroslav Pelikan, Helmut T. Lehmann, and Hilton C. Oswald.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9.
- Martin Luther, *Luther’s Works*, Vol. 33: *Career of the Reformer III*, ed. Jaroslav Jan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3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9).
- Moser, Christian. "Scope of Edition and Editorial Guidelines."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ited by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XXXIII-XXXV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Muller, Richard A. "Arminius: A Study in the Dutch Reformation." *Pneuma* 9, no. 2 (Fall 1987): 198-99.
- \_\_\_\_\_. "Arminius and the Reformed Tradit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0, no. 1 (Spring 2008): 19-48.
- \_\_\_\_\_. "Arminius and the Scholastic Tradi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4, no. 2 (November 1989): 263-77.
- \_\_\_\_\_. *God, Creation, and Providence in the Thought of Jacob Arminius*. Grand Rapids, MI: Baker, 1991.
- \_\_\_\_\_. "God, Predestination, and the Integrity of the Created Order: A Note on Patterns in Arminius’ Theology." In *Later Calvinism*, edited by W. Fred Graham, 431-46.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4.
- \_\_\_\_\_. "The Priority of the Intellect in the Soteriology of Jacob Arminiu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5 (Spring 1993): 55-72.
- \_\_\_\_\_. "Was Calvin a Calvinist?" In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51-69. Grand Rapids: Baker, 2012. <https://goo.gl/1Z5wCp> (2020.8.3. 접속) 한역: 멀러, 리처드. “칼빈은 칼빈주의자였는가?” 「생명과 말씀」 5 (2012): 11-79.
- Platt, Eric. *Britain and the Bestandtwisten: The Causes, Course and Consequences of British Involvement in the Dutch Religious and Political Disputes of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 Rees, B. R. *Pelagius: Life and Letters*. Revised ed. Rochester, NY: Boydell Press, 1998.
- Roelevink, Johanna. “Introduction to the Acts and the Instructions of the Delegates of the States General.”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ited by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LIII-LX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Sc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The Evangelical Protestant Creeds, with Translations*. Vol. 3.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2.
- Selderhuis, Herman.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ited by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XV-XXX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Sinnema, Donald. “Introduction to the Acta Authentica, Acta Contracta and Printed Acta.”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ited by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XXXIX-L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Sinnema, Donald ed. “Acata Synodi Nationalis: First Printed Edition.”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ited by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189-33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Sinnema, Donald,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eds.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Sinnema, Donald, and Janika Bischof eds. “Acta Authentica.”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ited by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3-18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Stanglin, Keith D. *Jacob Arminius: Theologian of Gr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Thier, Sebastian. *Kirche bei Pelagius*. Reprint 2015 edition. Berlin: De Gruyter, 1999.
- Van Lieburg, Fred. “The Participants at the Synod of Dordt.” In *Acta et Documen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ae (1618-1619)*, edited by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 J. Selderhuis, LXIII-CV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Woo, B. Hoon. *The Promise of the Trinity: The Covenant of Redemption in the Theologies of Witsius, Owen, Dickson, Goodwin, and Coccei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